20~30대 선호 … 기독교인 20% 넘어

참가이유 내국인 '자기성찰 기회' 외국인 '한국전통 이해'

템플스테이 참가 내 · 외국인 1668명 설문결과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국인 5명 가운데 1명, 외국인 5명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으로 드러났다. 또 내국인은 '자기성찰의 기회'로, 외국인은 '한국 전통과 문화의 이해'를 위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지난해 9~12월 15개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1494명의 내국인과 174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내국인

-참가 이유와 만족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국인들은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기 위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경우가 35%로 가장 높았다. 새로운 문화 체험(23%), 산사에서의 휴식(24%) 등도 주요 참가이유로 드러나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불과 참선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자 종교 및 연령 분포

참가자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37%, 개신교 10%, 가톨릭 9%, 유교1%, 무종교 38% 등으로 나타나 5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참가연령은 20대(37%)와 30대(26%)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19%), 50대(9%), 60세 이상(3%)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도가 낮아져 템플스테이가 젊은 층 포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형태로는 개인 참가자가 47%로 가장 많았고, 기업(23%), 일반단체(11%), 대학생(10%), 불교단체(9%) 순으로, 기업과 일반단체의 참가도가 높아 앞으로 대상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드러냈다. 성별로는 남자(53%)가 여자(46%)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참가자가 65%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울산은 1%에 머물러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20%, 교육 및 연구종사자가 19%로 나타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주부참가자가 12%로 사찰별 분석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 차후 주부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야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참가 이유와 만족도

같은 기간 외국인 개인 참가자 174명은 '한국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으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참선과 예불도 70% 이상의 호감도를 보였는데 특히 예불에 대한 호감도는 80%에 육박해 화려하고 장중한 의식 등 한국불교의 문화적인 측면을 좀더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종교 및 연령 분포

여자(53.4%)가 남자(44.8%)보다 참가비율이 다소 높았고, 미국인(17.2%)과 중국인(9.8%)인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캐나다 · 일본(각 6%), 독일 · 베트남(각 5%), 프랑스(4%)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했으며, 동양권보다는 서양권 외국인들의 참가가 두드러져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외국인 역시 20대의 참가율이 50.1%로 월등히 높았고 30대(20%), 50대(10%), 40대(9%), 60세 이상(4%), 10대(3%) 등의 비율을 보였다. 종교분포 역시 무종교 참가자가 35%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22%), 가톨릭(14%), 불교(13%) 등 불자가 아닌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시설 만족도

진행자의 친절성(95%) 및 전문성(90.2%)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 청결도와 편의도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화장실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설비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한국 비구니史 복원은 내 의무"

인터뷰 美 조지아大 이향순 교수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수입종교였던 불교가 토착불교로 변하고 있어요. '미국식 불교'가 시작되는 거죠." 미국 조지아 대학 비교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향순 교수(49 · 사진).

3월 13~19일 운문사 등지에서 열린 조지아대학 템플스테이 (관련기사 9면) 참가학생들과 함께 방한한 이 교수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인사가 의욕적으로 준비 중인 비구니 외국어학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년 동안의 생활과 학습이 영어로만 진행되죠. 외국문화를 제대로 익힌 스님들이 나오면 한국불교의 판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교수는 모든 스님들이 외국어공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젊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승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세계 어느 곳에도 한국의 승가와 같은 조직은 없거든요. 스님들은 승가를 제대로 운영해, 외국인들이 배울 있도록 하고 외국 상황에 익숙한 재가자를 통한 '이원적인 포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여기에 한국비구니들의 역할이 크죠."

이 교수가 이렇게 한국 비구니에 기대감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 혹심한 탄압 속에서 한국불교가 명맥을 이어간 것은 이름 모를 비구니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이 불교의 전부라고 믿는 일본불교의 출발이 백제 비구니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큰 기쁨을 느꼈어요. 한국 비구니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죠."

그때부터 이 교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한국의 비구니'를 복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조가 아무리 많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상(相)을 내세우지 않은 게 한국의 비구니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삶을 다시 밝은 빛 앞에 세우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교수는 조선시대 비구니 등의 역할 등에 주목한 다수의 논문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불교대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 교수는 비구니 스님 연구나 예술 문화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불교연구, 학제간 연구를 통해 불교적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찰내 개인 거주건물 재산세 부과

사찰 내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주거용이나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3월 16일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직접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등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다"며 "종교용으로 인정한 법당 건물을 제외한 시설의 내부가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정인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찰 내부의 건물이 종교 목적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 등 2억1370만원을 부과 처분한 관할관청의 과세에 불복한 경남 'ㅌ'사찰 서울 포교당으로 등록된 성북동 '0원' 이 제출한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행자부의 최종 결론이다.

행자부의 당당 심사관은 "98년부터 사찰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비과세했다"며 "이 사찰을 세무조사 한 결과 모 건설회사 자택과 담장이 처진 채 접한 사찰건물 1동이 분리된 것을 확인하고, 사찰과 관련이 없는 주거용 주택에 세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북구청은 법당을 포함한 3채의 건물 중 불상을 모셔둔 1채만이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채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를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받은 '0원'은 "법당 건물 이외의 건물에는 외국인 스님들이 거주하며, 참선수행하고 있으며, 세금부과 대상이 된 건물은 부속암자로서 청소관리 등을 위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자치부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산하단체 '신도센터' 불사 제안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종 신도 · 포교 · 사회 · 학술 · 연구단체들이 가칭 '신도센터' 불사안을 마련, 3월 1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불사안은 2개 안으로, 하나는 현재 교육원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을 신도회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다른 안은 조계사 앞길 건너편 부지(견지동 73번지)에 신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는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21개 신도단체, 포교사단을 비롯한 6개 포교단체,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7개 사회단체, 불교학 연구회를 비롯한 학술 · 연구단체들이 입주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남동우 기자

불교단체 활동가 워크숍

불교단체활동가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이 개최된다.

조계종 사회부와 중앙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주요 실무자들은 3월 15일 모임을 갖고, 불교계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월 27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활동가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사찰오수처리시설 교육

조계종 사회부(부장 정념)는 3월 25일 오후 2시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5 사찰오수처리시설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설악산 봉정암, 내장산 도덕암, 북한산 금선사, 북한산 청학사 등의 4개 사찰과 2002년에 시설을 설치한 17개 사찰 등 모두 21개 사찰이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나를 먼저 돌아보자

최근 부산불교신도회 문제와 관련해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부산불교신도회에서 퇴직권고를 당한 A씨가 함께 일했던 재가자 B씨와 관련된 진정서를 들고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B씨 또한 조만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시점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A씨와 B씨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거나 '도대체 부산불교신도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두 사람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혹자는 이번 갈등이 두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불교신도회 조직이나 교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했고 또 어떤 이는 대화를 통한 지혜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A씨와 B씨, 부산 교계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표명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는 판단에 앞서 그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두 재가자의 '등돌림'이 주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인간의 삶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화로서 풀 수 없는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면 내 주장을 펴기에 앞서 한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상대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힘써 내 몸을 되살펴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 부산 불교계와 부산불교신도회를 위하는 합의점을 찾는 대화의 봄바람이 A, B 두 사람에게는 물론 부산 교계에 불어와야 할 때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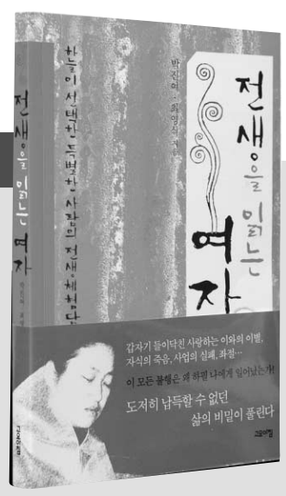
에드가 케이시에 못지 않은 놀라운 리딩 능력의 소유자 박진여씨의 최면투시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카르마(업)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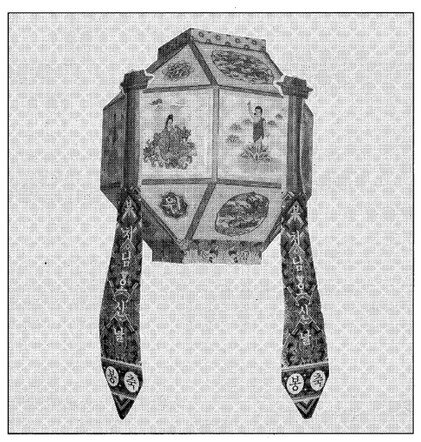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996-6156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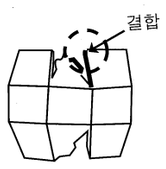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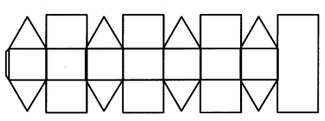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